

툼식곡

출새곡(出塞曲)

조우인(曹友仁)

북방 이십여주에 경성이 문회러니
치병 목민을 날을 맞겨 보내시니
망극한 성은을 갑플 일이 어려워라
서생 스업은 한묵인가 너기더니
백수 님변이 진실노 의외로다
인정전 비스하고 칼을 잡고 도라셔니
만리 관하의 일신을 다 닛괘라
흥인문 너다라 녹양의 물을 ㄴ니
은한 넷 길홀 다시 지나 간단 말아
회양 네 스실 기별만 드렸더니
금달을 외오 두고 적각은 무슨 ㄴ고
참암 철령을 험튼 말 전혀 마오.
세도를 보거든 평딘가 너기노라.
눈물을 베꺸고 두어 거름 도라 셔니
장안이 어디오 옥경이 ㄴ리거다
안변 이북은 저즘씩 호디러니
신소 성전호야 벽국 천리호니
윤관 종서의 풍공 위렬을

북방(北方) 이십여주(二十餘州)에 경성(鏡城)이 門戶(문호)¹⁾이러니
치병 목민(治兵 牧民)²⁾을 나를 맡겨 보내시니
망극(罔極)한 성은(聖恩)을 갑을 일이 어려워라.
서생(書生) 사업(事業)은 한묵(翰墨)³⁾인가 여기더니,
백수 임변(白首 臨邊)⁴⁾이 진실로 의외(意外)로다.
인정전(仁政殿)⁵⁾ 배사(拜辭)⁶⁾하고 칼을 잡고 돌아서니
만리(萬里) 관하(關下)⁷⁾에 일신(一身)을 다 닛꺸구나.
흥인문(興仁門)⁸⁾ 내달아 녹양(綠楊)⁹⁾에서 말을 갈아타니,
은한(銀漢) 옛 길을 다시 지나 간단 말인가.
회양(淮陽)¹⁰⁾ 옛 사실(事實) 기별(寄別)만 들었더니
금달(禁闔)¹¹⁾을 외롭게 두고 적객(謫客)¹²⁾은 무슨 죄인고.
참암 철령(嵯巖 鐵嶺)¹³⁾을 험(險)하단 말 전혀 마오.
세도(世道)를 보거든 평지(平地)인가 여기노라.
눈물을 내어꺸고 두어 걸음 돌아 셔니
장안(長安)이 어디인가, 옥경(玉京)¹⁴⁾이 가리었구나.
안변(安邊)¹⁵⁾ 이북(迤北)은 저기쯤 호지(胡地)러니,
신소 성전(迅所 腥膻)¹⁶⁾하여 벽국(關國)¹⁷⁾ 천리(千里)하니,
윤관(尹瓘)¹⁸⁾ 종서(宗書)¹⁹⁾의 풍공(豐功)²⁰⁾ 위렬(偉烈)²¹⁾을

1) 외부와 교류하기 위한 통로.

2) 지방관의 자격으로 군사를 다스리고 백성을 돌봄.

3) 문한(文翰)과 필묵(筆墨)이라는 뜻으로, 글을 짓거나 쓰는 것을 이르는 말.

4) 벼슬을 하지 않던 사람이 변방에 부임을 함

5) 창덕궁의 정전(正殿).

6) 존경하는 웃어른에게 공경히 받들어 사례함.

7) 국경에 있는 성이나 요새의 근처.

8) 흥인지문(興仁之門), 동대문

9) 의정부 인근의 마을.

10) 강원도의 고을 이름

11) 궐내에서 임금이 평소 거처하는 궁전의 앞문

12) 귀양살이를 하는 사람.

13) 깎아지른 듯 높이 솟은 바위와 험한 고개

14) 하늘 위에 옥황상제가 산다고 하는 가상의 서늘.

15) 함경도의 고을 이름

16) 비린내와 노린내 나는 것들을 빨리 쓸어냄.

17) 국토를 넓힘.

18) 여진 정벌을 하고 구성(九城)을 쌓은 고려시대의 장군.

19) 김종서(金宗瑞). 조선 세종 때의 무신(武臣)으로 육진을 개척하여 조선의 국토를 넓히는 데에 큰 공을 세웠음.

20) 매우 큰 공훈.

21) 위대한 공로나 공적.

초목이 다 아늑다
용흥강 건너 드리 정평부 잠깐 지나
만세교 압희 두고 낙민누희 올라 안즈
옥저 산하를 면면히 도라보니
천년 풍패에 울창 가리느
어제론 덧 하여세라.
함관령 저문 날의 물은 어이 병이 듣고
만면 풍사의 갈 길히 머러세라
홍원 고현의 천도를 바라보고
대문령 너머 드리 청해진에 드러오니
일도 후설이요, 남북 요통이라
신신 정졸로 니병을 베퍼시며
강궁 경노로 요해를 디키는 듯
백년 승평에 민불 지병하니
등문 디포를 닐너 므슴 하리오
거산역 디나 드리 시등디 올라 안자
디척 부상의 일출을 구버 보고
당송 십리 쥘해 정마를 다시 봐와
단천을 겨턱 두고 스디현을 츠자 가니

초목(草木)이 다 아늑구나.
용흥강(龍興江)¹⁾ 건너 들어 정평부(定平府)²⁾ 잠깐 지나
만세교(萬歲橋)³⁾ 앞에 두고, 낙민루(樂民樓)⁴⁾에 올라 안자
옥저(沃沮)⁵⁾ 산하(山河)를 면면(面面)히 돌아보니
천년(千年) 풍패(豐沛)⁶⁾에 울창(鬱蒼) 가기(佳氣)⁷⁾는
어제인 듯하여라.
함관령(咸關嶺)⁸⁾ 저문 날에 말은 어이 병이 듣고.
만면(滿面) 풍사(風沙)의 갈 길이 멀었구나.
홍원(洪原)⁹⁾ 고현(高縣)¹⁰⁾에 천도(穿島)¹¹⁾를 바라보고,
대문령(大門嶺)¹²⁾ 넘어 들어 청해진(靑海鎭)¹³⁾에 들어오니
일도(一道) 후설(喉舌)¹⁴⁾이요, 남북(南北) 요충(要衝)이라.
신신 정졸(信臣 精卒)¹⁵⁾로 이병(利兵)¹⁶⁾을 베풀었으니
강궁 경노(強弓 勁弩)¹⁷⁾로 요해(要害)¹⁸⁾를 지키는 듯
백년(百年) 승평(升平)¹⁹⁾에 민불지병(民不知兵)²⁰⁾하니
중문(重門) 대포(待暴)²¹⁾를 일러 무엇 하리오.
거산역(居山驛)²²⁾ 지나 들어 시중대(侍中臺)²³⁾ 올라 앉아
지척 부상(咫尺 扶桑)²⁴⁾에 일출(日出)을 굽어보고
장송(長松) 십리(十里) 길에 정마(征馬)²⁵⁾를 다시 보아
단천(端川)²⁶⁾을 곁에 두고 사지현(四知軒)을 찾아 가니

- 1) 함경도에 있는 강.
- 2) 평안도 정주(定州).
- 3) 함경도 함흥의 성천강에 있던 다리.
- 4) 함경도 함흥에 있는 누각.
- 5) 고대 국가 가운데 함경도의 함흥 일대에 있던 나라
- 6) 중국 한나라 유방의 고향. 여기서는 함흥이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고향이라서 풍패와 같다는 의미.
- 7) 자연의 상서롭고 맑은 기운.
- 8) 함경도 함흥 동쪽에 있던 고개.
- 9) 함경도의 고을 이름.
- 10) 함경도의 고을 이름.
- 11) 함경도 홍원군 앞바다에 있는 구멍이 뚫린 바위섬.
- 12) 함경도의 고개.
- 13) 함경도의 북청도호부의 다른 이름.
- 14) 매우 중요한 곳.
- 15) 충성심이 강하고 우수한 군사.
- 16) 예리한 무기.
- 17) 강한 활과 굳센 쇠뇌. 군사력이 강한 것을 말함.
- 18) 요충지.
- 19)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태평함.
- 20) 백성들이 군대를 모름.
- 21) 난폭함을 대비함.
- 22) 북청도호부에 딸린 역 이름.
- 23) 북청의 동쪽 동해가의 해돋이로 유명한 언덕.
- 24) 해 뜨는 동해 바다.
- 25) 먼 길을 갈 때에 타는 말.
- 26) 함경도의 고을 이름.

빅기 청풍을 다시 본 듯 흔데이고
 마운령 채 쳐 너머 마곡역 물을 쉬워
 적설 마천을 허위허위 너머 드니
 진관이 어디고 촉잔이 여기로다
 성진 설진이 형세는 도커니와
 난후 변민이 고혈이 물나시니
 묘당 육식은 아는가 모르는가
 백두산 일맥이 당백산 되어 이서
 천리를 흔격하야 강역을 눈 훑거든
 진보 성나하고 군읍이 기포하니
 표리 천험은 장호미 그지없다
 연천 창희에 풍설이 섰티는디
 발섭 기구하야 목랑성의 드러오니
 천심 분첩은 반공의 빗겨 잇고
 빅당 심호는 스면의 둘러시니
 인화를 어들선정 디리야 부족할가
 원문이 무스하고 막부 한가한 제
 동산 휴기하고 북해준을 거홀우라
 연화 삼월의 원슈디에 올라가니

백기 청풍(伯起 淸風)¹⁾을 다시 본 듯 하였고구나.
 마운령(磨雲嶺)²⁾ 채 쳐 넘어 마곡역(麻谷驛) 말을 쉬어
 적설 마천(積雪 磨天)³⁾을 허위허위 넘어 드니
 진관(秦關)이 어디인가, 촉잔(蜀棧)⁴⁾이 여기로다.
 성진(城津)⁵⁾ 설진(設鎭)⁶⁾이 형세(形勢)는 좋거니와
 난후(亂後)⁷⁾ 변민(邊民)⁸⁾이 고혈(膏血)이 말랐으니
 묘당(廟堂)⁹⁾ 육식(肉食)은 아는가, 모르는가.
 백두산(白頭山) 일맥(一脈)이 장백산(長白山) 되어 있어
 천리(千里)를 한격(限隔)¹⁰⁾하여 강역(疆域)을 나누었거든
 진보(鎭堡)¹¹⁾ 성라(星羅)¹²⁾하고 군읍(郡邑)이 기포(碁布)¹³⁾하니
 표리(表裏) 천험(天險)¹⁴⁾은 장(壯)함이 그지없다.
 연천(連天) 창해(滄海)에 풍설(風雪)이 섞어 치는데
 발섭(跋涉)¹⁵⁾ 기구(崎嶇)¹⁶⁾하여 목랑성(木郎城)¹⁷⁾에 들어오니
 천심(千尋) 분첩(粉堞)¹⁸⁾은 반공(半空)에 비껴 잇고
 백장(百丈) 심호(深濠)¹⁹⁾는 사면(四面)에 둘러오니
 인화(人和)를 얻을지언정 지리(地利)야 부족(不足)할까.
 원문(轅門)²⁰⁾이 무사(無事)하고 막부(幕府)²¹⁾가 한가(閑暇)할 제
 동산(東山) 휴기(携妓)²²⁾하고 북해준(北海鱗)²³⁾을 기우리라.
 연화(烟花)²⁴⁾ 삼월(三月)에 원수대(元帥臺)²⁵⁾에 올라가니

1) 처음 일어나는 맑은 바람

2) 함경도의 고개 이름.

3) 쌓인 눈이 하늘을 만질 듯 높이 솟아 있음.

4) 중국의 험한 길

5) 함경도의 고을 이름.

6) 진을 침.

7) 임진왜란 후

8) 변방(邊方)에서 사는 백성.

9) 조정.

10) 한계나 경계가 막힘.

11) 함경도와 평안도의 북방 변경에 있던 각 진

12) 별처럼 많이 펼쳐져 있음.

13) 바둑돌이 판에 줄지어 있는 것처럼 촘촘히 널려 있음.

14) 천연적으로 아주 험함.

15)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여러 지방으로 돌아다님

16) 산길이 험함.

17) 함경도 경성(鏡城)의 옛 이름.

18) 성 위에 낮게 쌓아 석회를 바른 담.

19) 깊은 해자(壕字).

20) 군영의 문.

21) 변방에서 지휘관이 머물면서 군사를 지휘하던 군막(軍幕).

22) 기생의 손을 잡아 춤.

23) 북객을 대접하는 술동이, 후한 때 북해의 재상의 지낸 공융이 항상 빈객을 좋아하여 술동이가 비지 않았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

24) 봄의 경치. 기녀(妓女)를 이르기드 함.

25) 함경도 경성 남쪽의 동해에 있는 명승지.

춘풍 이탕하야 숙경을 부쳐 내니
 만수 천림은 홍금이 되어 있고
 운도 설낭은 하늘을 그을 사마
 분박 뇌정하야 딕 압희 물너디니
 은산이 거듯는가 옥설을 놀니는가
 깃 그탄 잠적에 빙운 그툰 술을 치고
 천양 묘기로 승부를 댈토거든
 백대 홍장은 좌우의 버러 이셔
 진쟁 도슬을 뜯거니 니희거니
 호치 세요로 추거니 부르거니
 소화도 그디업고 풍경이 무딘하니
 일춘 흥낙이 슬피염즉 하다만
 향관을 바라보니 오령이 그려 있고
 이디 산천은 녹딘이 거의로다
 명시 덕관이 도처의 군은이로되
 원신 금전을 뉘 아니 슬퍼하며
 둥입 수문을 어이하야 期必호고
 평생 먹은 쓰디 전혀 업다 할까마는
 시운의 타시런가 명도의 밋었는가
 딘딕 백수의 세월이 쉬이 가니
 초택 청빈은 원스도 한 제이고
 이 잔 그득 부어 이 시름 닛다 하니

춘풍(春風) 이탕(駘蕩)¹⁾하야 숙경(淑景)²⁾을 부쳐 내니
 만수 천림(萬樹 千林)은 홍금(紅錦)³⁾이 되어 있고
 운도 설랑(雲濤 雪浪)⁴⁾은 하늘을 경계 삼아
 분박 뇌정(噴薄 雷霆)⁵⁾하야 대(臺) 앞에 무너지니
 은산(銀山)이 걷히는가 옥설(玉屑)⁶⁾을 날리는가.
 깃 같은 잔디에 백운(白雲) 같은 술을 치고
 천양 묘기(穿揚 妙妓)⁷⁾로 승부를 다투거든
 백대 홍장(百隊 紅粧)⁸⁾은 좌우(左右)에 벌려 있어
 진쟁 조슬(秦箏 趙瑟)⁹⁾을 타거니 흔들거니
 호치 세요(皓齒 細腰)¹⁰⁾로 추거니 부르거니
 소화(韶華)¹¹⁾도 그지없고 풍경(風景)이 무진(無盡)하니
 일춘(一春) 행락(行樂)이 싫증난 즉 한다마는
 향관(鄉關)¹²⁾을 바라보니 오령(五嶺)이 가려 있고
 이지(異地) 산천(山川)은 육진(六鎭)¹³⁾이 거의로다.
 명시(明時)¹⁴⁾ 적관(謫官)¹⁵⁾이 도처(到處)에 군은(君恩) 이로되
 원신(遠身) 금전(金殿)¹⁶⁾을 뉘 아니 슬퍼하며
 둥입 수문(重入 修門)¹⁷⁾을 어이하야 기필(期必)¹⁸⁾할까.
 평생(平生) 먹은 뜻이 전혀 없다 할까마는
 시운(時運)의 타이런가, 명도(命途)¹⁹⁾에 매었는가.
 진대 백수(秦臺 白首)²⁰⁾에 세월(歲月)이 쉬이 가니
 초택 청빈(楚澤 靑蘋)²¹⁾은 원사(怨思)도 한 제이고.
 이 잔(盞) 가득 부어 이 시름 잊자 하니

1) 맑고 따듯함.

2) 화창한 봄의 경치.

3) 붉은빛의 비단.

4) 흰 구름이 파도처럼 일렁임.

5) 파도가 웅숭음치는 모양과 천둥치는 것같은 소리

6) 옥가루

7) 화살로 버들잎을 꿰는 묘한 재주

8) 여러 무리의 기녀

9) 진나라의 아쟁과 조나라의 비파로 화려한 음악을 말함

10) 흰 이와 가는 허리라는 뜻으로 아리따운 기녀의 용모를 말함.

11) 봄의 화창한 경치

12)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

13) 조선 세종 때, 동북 방면의 여진족이 침입할 것에 대비하여 두만강 하류 지역에 설치한 여섯 진

14) 문명이 발달하여 평화로운 세상.

15) 벼슬아치가 잘못을 저질러 좌천됨.

16) 궁전.

17) 다시 대궐로 돌아감.

18) 꼭 이루어지기를 기약함.

19) 운명과 재수.

20)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늙는 줄을 모른다는 말. 진대는 선녀가 가리키는 곳

21) 유배지에서도 변치 않는 충성심. 초택은 초나라 굴원이 유리 방랑하던 목가로 유배지를 가리킴. 청빈은 푸른 마음으로 변치 않는 충성심

동명을 다 퍼내다 이 내 시름 어이 홀고
어뵤 이 말 듯고 낙딴를 둘너 메고
빅 썸 두드리고 노래를 부른 말이
세스를 니전디 오라니 몸조차 니전노라
빅스 싱애는 일간죽 썸이로다
빅구는 나아 버디라 오명 가명 흐느다

동명(東溟)¹⁾을 다 퍼내다 이 내 시름 어이 할까.
어부(漁夫)가 이 말 듣고 낙싯대를 둘러메고
뱃전 두드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세사(世事)를 잊은 지 오래니 몸조차 잊었노라.
백사(百事)²⁾ 생애(生涯)는 일간죽(一竿竹)³⁾ 썸이로다.
백구(白鷗)는 나와 벗이라, 오명 가명 하는구나.

1) 동해.
2) 모든 일.
3) 대지팡이.